

만보산 사건과 아동문학*

— 신의주 반중국인 폭동을 다룬 김우철의 소년소설 —

원종찬**

〈차 례〉

1. 만보산 사건과 반중국인 폭동
 2. 신의주 출신의 카프 작가 김우철
 3. 신의주 반중국인 폭동의 소설화
 4. 맹목적 애국주의에 대한 해독 작용
- * 부록: 김우철, 『왕매란과 순녀』 원문자료 사본

【국문초록】

이 연구는 만보산 사건(1931)에서 촉발된 신의주 반중국인 폭동을 다룬 김우철의 소년소설 『왕매란과 순녀』(1937)에 대한 발굴 보고이다. 만보산 사건과 관련된 작품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아 왔으나, 아동문학 분야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작품이 하나도 없었기에 이렇다 할 논의가 뒤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새로 찾은 김우철의 소년소설은 중일전쟁을 코앞에 둔 시점에 만보산 사건과 반중국인 폭동을 불러와서 그 비극성을 돌아보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작품 가운데, 만보산 사건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피해자를 주요 등장인물로 삼은 것은 한국문학을 통틀어 이 작품이 거의 유일하다. 1931년 7월 초순경 전국 각지로 번져나간 반중국인 폭동은 한국인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윤리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차별과 혐오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김우철의 『왕매란과 순녀』는 아동문학을 넘어서는 한국문학의 뜻 깊은 유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아동문학, 김우철, 『왕매란과 순녀』, 만보산 사건, 배화 사건, 반중국인 폭동, 만주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교수

1. 만보산 사건과 반중국인 폭동

1931년의 만보산 사건과 반중국인 폭동을 다룬 김우철(金友哲, 1915~1959)의 소년소설 『왕매란(王梅蘭)과 순녀(順女)』(『가톨릭소년』, 1937.6~7)를 새로 소개한다. 아동문학 분야에서는 만보산 사건이라는 말이 다소 낯설게 여겨질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급할 만한 아동문학 작품이 부재했던 탓일 게다. 한편, 만보산 사건과 하나로 이어져 있는 국내의 반중국인 폭동은 훨씬 규모가 크고 충격적임에도 가해의 역사라서 그런지 상식이 되기에는 더욱 갈 길이 먼 듯하다. 일례로 필자의 대학원 수업에 참여한 수강자 대부분은 이때의 사건을 처음 듣는다고 했다. 심지어 본고에 앞서 새로 입수한 『가톨릭소년』의 모든 작품을 갈래별로 검토 소개한 ‘발굴자료 보고’ 성격의 한 연구에서조차 폭동의 피해자로 ‘중국소녀’가 등장하는 김우철의 소년소설을 그냥 건너뛰고 말았다.¹⁾ 차별과 혐오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신의주 반중국인 폭동의 아픔을 돌아보는 당대의 아동문학 작품은 현재적 가치로서도 주목을 요한다.²⁾

만보산 사건은 1931년 7월 2일 중국 길림성(吉林省) 장춘현(長春縣) 만보산(萬寶山) 지역에서 수로(水路) 문제를 둘러싸고 이주 조선인 농민과 중국 농민이 충돌한 사건을 말한다. 이전부터 만주 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갈등이 그치지 않았거니와 따로 사상이자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조·중 농민 충돌 사태 자체는 그리 특별하달 게 없었다. 그런데 당일 저녁 이를 잘못 보도한 『조선일보』의 호의 기사로 인해 이 사건은 국내 곳곳에서 대규모 반중국인 폭동으로 확대되었다. 만보산 지역의 조선인이 중국인의 습격을 받아 수

1) 박금숙, 「1930년대 『가톨릭소년』지의 아동문학 양상」, 『한국아동문학연구』 34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8. 아쉽게도 이 논문에는 김우철의 작품이 빠져 있다. 이 기회에 『가톨릭소년』의 소장자인 서강대 최기영 교수와 연결해 주고 자료를 복사해서 검토할 수 있게 해준 박금숙 연구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 필자는 새로 찾은 김우철의 『왕매란과 순녀』를 오늘의 아동·청소년 독자에게 읽힐 만하다고 보아 전문을 현대어 표기로 바꿔서 계간 『창비어린이』에 소개하고 간략히 해설을 붙인 바 있다(줄고, 『차별과 혐오를 이겨낸 소녀들 - 김우철 『왕매란과 순녀』 발굴에 붙여』, 『창비어린이』, 2021년 가을호). 본고는 이 해설을 대폭적으로 확대 개고한 것임을 밝힌다.

많은 사상자가 잇따르고 있다는 왜곡 보도가 민족감정에 불을 지른 것이다. 명백한 오보였음에도 결과는 참혹했다.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 평양, 신의주, 원산, 진남포, 사리원, 해주, 군산, 목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중국인에 대한 무차별 폭력과 살상이 자행되었다.

당시 평양에 주재했던 『동아일보』 기자 오기영은 “평양에 기록이 있는 이래로 이런 참극은 처음이라 할 것이다. 미(美)의 도(都) 평양은 완전히 피에 물들었다.”고 탄식하면서 “민족의식의 오용을 곡(哭)”하는 혼치 않은 기록을 남겼다.³⁾ 제목에 ‘회고’라는 말을 썼으나, 사건 직후에 발표된 이 기록은 평양 반중국인 폭동의 참혹한 실상을 그대로 전하는 당대의 귀중한 자료다. 몇 군데 발췌해서 살펴보자.

비상시기의 군중을 선동하는 유언과 비어는 실로 위대한 힘을 가졌다. 냉정에 돌아가면 상식으로서 판단될 허무맹랑한 소리가 마침내 전율할 살인극을 연출하고야 말았다. (...) 죽은 어린애를 죽은 줄도 모르고 힘껏 부여안은 채 경찰서로 도망해 와서 비로소 내자(乃子)의 시체 되었음을 발견하는 모성…… 젖 빠는 어린애를 껴안은 채 부축되어 서(罌)로 와서 땅바닥에 누이자 숨이 넘는 모성. 시내는 완전히 ××× 상태다. (...) 군중은 완전히 잔인한 통쾌에 취해버렸다. 삼사 명 내지 육칠 명씩 피 흐르는 곤봉을 든 장정을 앞세우고 이삼백 명씩 무리를 지어 피에 주린 이리떼처럼 맞아 죽을 사람을 찾아서 헤맨다.⁴⁾

전국적인 피해 상황은 중국인 사망자 127명, 부상자 393명, 재산 손괴 250만원으로 조사되었고, 폭력에 가담한 조선인 가운데 1,840명이 체포되었다.⁵⁾ 조선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소수자 처지였으므로 반항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살해 혐의를 받는 조선인에 대한 재판 보도기사를 찾아보니, “피고들

3) 오기영, 「평양폭동사건 회고」, 『동광』, 1931.9. 10쪽.

4) 오기영, 위의 글, 11쪽. 본고의 인용은 소설 원문을 제외하곤 제목과 본문을 모두 현대어 표기로 바꾸었다.

5) 윤상원, 「한국 역사학계의 만보산사건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문학연구』 51,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6, 15쪽.

은 7월 7일 오후 8시경 동리 중국인 등흠화(藤欽和, 37)를 톱으로 다리를 썰고 돌과 곤봉으로 쳐죽인 것으로 재판장 앞에서 시인하였다. 그들의 공술에 의하면 피살된 중국인은 죽기까지 아무 반항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⁶⁾는 대목이 나온다. 만주 사태에 대한 오보가 바로잡히기까지 약 일주일 동안 얼마나 끔찍한 마녀사냥의 광풍이 몰아쳤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일반적으로 만보산 사건은 만보산 지역 분쟁을 시발점으로 해서 국내에까지 엄청난 규모로 번져나간 조선인과 중국인의 충돌 사건을 통칭하는 말이다. 만일 연쇄적인 국내 폭력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만주 지역의 여러 돌발사건 중 하나에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국내로 번진 반중국인 폭동에 대해서는 따로 ‘배화(排華)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명칭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국내 화교(華僑)와 조선인의 충돌은 이전에 적지 않았던 터라 이를 가리키는 ‘배화 사건’이라는 범칭의 사용은 자칫 만보산 사건의 비극을 팔호에 넣거나 지워버리는 효과를 빚기 쉽다. 또한 ‘화교’라는 말은 일시적 계절노동을 하러 온 중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하지 않기에 사건 희생자의 실제 양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⁷⁾ 본고는 이런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배화 사건’을 ‘반중국인 폭동’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지역 표시 문제로 두 사건을 각각 따로 운위한다면, 1931년의 ‘배화 사건’은 이 땅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중국인 대학살 사건’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를 만보산 사건에서 슬그머니 떼어내곤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는 회피심리가 오랜 기간 지배해 왔다.⁸⁾ 만보산 사건을 ‘관동 대지진 조선

6) 『평양 사건 공판 제1일, 3명에겐 사형 구형』, 『동아일보』, 1931.8.20.

7) 정병욱, 『1931년 식민지 조선 반중국인 폭동의 학살 현장 검토』, 『사총』 97,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9, 114쪽. “‘화교’는 일반적으로 중국정부 또는 중국인이 중국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인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이다. 또 본 사건의 피해자에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중국인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계절노동을 하러 한반도에 온 중국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화교’보다는 ‘중국인’이라 지칭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1931년 당시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조선인도 이들을 가리킬 때 ‘화교’나 일본인이 사용하는 ‘支那人’보다 ‘중국인’을 더 많이 사용했다. 아울러 포괄적인 ‘배척’보다 직접 폭력 행위를 뜻하는 ‘폭동’이 사건의 내용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것 같다.”

8) 윤해동, 『‘만보산 사건’과 동아시아 ‘기억의 터’ - 한국인들의 기억을 중심으로』, 『사이間SAL』 14, 국제한국문화학회, 2013, 참조.

인 학살 사건'처럼 아프게 기억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 사람들에게 만보산 사건은 만주사변(1931.9)의 전조(前兆)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과거 역사학계가 이 사건을 '일제의 획책으로 일어난 만주 지역 조·중 농민 충돌 사태'라고 주로 설명해 왔기 때문이다.⁹⁾ “만보산 사건'을 일제의 획책으로 의미규정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조선인의 책임의식은 희석되었다”¹⁰⁾고 언급한 연구가 눈길을 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배화 사건'은 조선 사상 초유의 이민족 대상 중요 공격으로, 이 사건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가 극히 적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이 조선인에게 윤리적 트라우마로 작용했다는 방증”¹¹⁾이라고 한다. 그런데 새로 찾은 김우철의 『왕매란과 순녀』에는 “만보산사건'과 “중국인××사건'이라는 어휘가 나란히 등장한다. 중국소녀 왕매란의 식구가 사건의 희생자로 그려지고 있으며, 매란을 감싸주는 동무 순녀까지도 함께 강습소 여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일제강점기에 만보산 사건을 거론하면서 중국인××[학살]사건을 기억한 작품, 특히 중국인 피해자를 주요 등장인물로 삼은 작품은 한국문학을 통틀어 이 작품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 알려진 만보산 사건 관련 작품은 이태준의 『농군』(『문장』, 1939.7), 안수길의 『벼』(『만선일보』, 1941.11.16~12.25), 일본어로 출간된 장혁주의 『개간-만보산부락건설기』(중앙공론사, 1943) 등인데, 모두 만주 지역 조·중 농민 갈등을 그린 것이고 중일전쟁(1937.7) 이후에 발표된 것들이라 일제의 식민화 정책과 친일 문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만보산 사건 관련 작품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아 왔다.¹²⁾ 일제가 이 사건을

9) 만보산 사건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박영석, 『만보산 사건 연구-일제 만주 침략정책의 일환으로서의』(아세아문화사, 1978) 같은 것이 대표적이는데, 윤해동은 이를 “음모론적 시각”이라고 지칭했다. 윤해동, 위의 논문, 487쪽.

10) 김준연, 『한국의 문학/지식 장에서 '만보산 사건'이 기억되어 온 몇 가지 방식』, 『한국문학연구』 51,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6, 69쪽.

11) 같은 곳.

12) 김재용 편, 『만보산사건과 한국근대문학』(역락, 2010)에 수록된 것들을 포함하여 적잖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돼 있다. 이태준의 『농군』은 만보산 사건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도 않았고 시간적 배경도 다르지만, 수로 문제를 둘러싼 만주 조·중 농민의 갈등을 다룬 것이라 만보산 사건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친일 문체를 두고서는 평가의 시각이 첨예하게 부딪혔다. 대표적인 사

빌미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국(1932.3)을 세우면서 대륙침략정책을 본격화했다는 ‘만보산 사건의 역사상’에 예민하게 반응한 결과일 것이다. 만주 지역 조·중 농민 갈등을 그린 이들 작품에 대해서는 주로 일제의 대륙침략 정책과 관련한 현실의식 또는 작가의식을 두고 쟁점이 불거졌다. 그러나 의도된 기획으로서의 대륙침략정책과 만주 지역 돌발 사태로서의 조·중 농민 충돌 사건을 일직선의 인과관계로 설명하기란 그리 간단치 않다.

최근의 역사학계는 만보산 사건에서 기억투쟁의 영역으로 숨어버린 반중국인 폭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근대 민족주의를 돌아보려는 탈근대주의·탈식민주의 연구 경향과도 관련이 깊다고 본다. 그런데 문학계에서는 만보산 사건 관련 작품 연구가 거의 멈춰진 상황이다. 반중국인 폭동을 다룬 작품이 나와 주질 않는 한 도리가 없다.¹³⁾ 이런 점에서 조·중

례로 긍정적인 시가는 김재용, 「친일문학의 성격 규명을 위한 시론」, 『실천문학』, 2002년 봄호; 하정일, 「1930년대 이태준 문학과 내부 식민주의 성찰」, 『배달말』 34, 배달말학회, 2004; 장영우, 「『농군』과 만보산사건」, 『현대소설연구』 31,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고명철, 『동아시아 반식민주의 저항으로서 일제말의 ‘만주 서사’ - 이태준의 『농군』과 한설아의 『대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49, 한국문학회, 2008. 부정적인 시가는 김철, 「몰락하는 신생 -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 『상허학보』 9, 상허학회, 2002; 이경훈, 「만주와 친일 로맨티시즘」, 『한국근대문학연구』 4 권 1호, 한국근대문학회, 2003. 궁·부정을 비껴간 ‘틈새’의 시가는 한수영, 「이태준과 신체제 - 식민지시대담론의 수용과 저항」, 문학사상연구회 편, 『이태준 문학의 재인식』, 소명, 2004; 하제연, 「『신체제』 성립 전후의 한국근대문학 연구방법론 고찰 - 이태준의 『농군』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5, 2008.

- 13) 이무영의 「두 훈시(誨示)」(『동광』, 1932.5)를 관련 작품으로 언급한 연구가 있긴 하다. 이상경, 「1931년의 ‘배화 사건’과 민족주의 담론」, 『만주연구』 11, 만주학회, 2011; 김준연, 앞의 논문. 이무영의 「두 훈시」는 여섯 끼를 굶은 무직의 한 지식인 청년이 중국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하다가 잡혀서 일주일간 유치장에서 지내던 중 ‘천리(天理)’를 깨쳤다는 H선생의 훈시에 감화한다는 내용이다. 청년은 중국음식점에서 계산할 돈이 없음에도 “요새는 만보산(萬寶山)사건으로 놈들이 쥐어지내는 판”(27쪽)이라는 만만한 생각을 하면서 호떡을 재차 주문하는데, 여기 한 대목만으로 만보산 사건과 반중국인 폭동 관련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옳색해 보인다. 이 작품은 청년의 허기에서 비롯된 생리 현상을 자연주의적으로 묘사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으며, 모종의 변화를 암시하는 결말은 터무니없는 비약에 가깝다. 이무영의 동반자적 경향이 조금 엇보이긴 해도, 위에 인용한 구절은 1931년 반중국인 폭동의 여파로 중국인들이 납작 앞드려 지낸다는 당시 세태를 그쳐 스치듯 이그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경은 이 구절을 가리켜 “‘배화 사건’을 반성하기는커녕 그것을 기화로 오히려 중국인에게 더 의기양양하게 구는 민족의식의 오용”(110쪽)을 보여줄 뿐이라면서, 「붉은 산」의 김동인처럼 「두 훈시」의 이무영도 “‘배화 사건’에 대해 별다른 자의식을 가지지 않은 것 같다.”(111쪽)고 혹평했다. 그런데 김준연은 “이무영의 「두 훈시」는 아마도 ‘만보산 사건’이라는 기호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최초의 소설”(64쪽)이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작가의 태도와 주인공 청년의 행위에 거리감이 없다는 이상경의 비판과는 다른 해석을 모색하려 했다. 하지만 근거가 불충분한 탓인지 제안 정도에 머물렀다.

접경시대 신의주의 반중국인 폭동에 눈길을 준 당대의 작품이 발견된 것은 자못 의미가 크다. 비록 소년잡지에 발표되었을지라도 근대 민족주의 성찰에 부합하는 문체적 작품인 것이 분명하므로 학계의 주목을 받기에 손색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신의주 출신의 카프 작가 김우철

신의주 반중국인 폭동을 다룬 「왕매란과 순녀」는 조·중 접경시대 신의주를 대표하는 카프 작가 김우철과 떼어낼 수 없다. 김우철은 1930년대에 연소(年少)한 카프 논객의 일원으로 ‘문필가협회와 카프의 관계, 농민문학, 동반자문학, 창작방법, 아동문학’ 등에 관한 논의를 펼치며 이목을 끌었다. 평론뿐 아니라 창작에 있어서도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등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했다. 다만 그는 신의주를 무대로 활약하다가 해방을 맞아 재북 작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익숙한 편은 아니다. 그에 관한 연구도 북한에서의 활동을 살핀 2편의 논문밖에는 보이지 않는다.¹⁴⁾ 하지만 시대와 현실 문제에 대한 성실한 태도로 여러 방면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과를 꾸준히 보여준 김우철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그 일은 차후를 기약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최소한의 것만을 살피고자 한다. 특히 김우철 연보의 기본에 해당하는 ‘철도 자살’ 여부와 정확한 생몰연대, 그리고 ‘3년간 만주 체류’ 여부와 만주 인식에 관한 것은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해방 이전 시기의 김우철 연보는 그가 북한에서 발표한 「나의 문학 소년 시절」(『아동문학』, 1957.10), 동향(同鄕)의 문우(文友) 이원우가 작성해서 붙인 『김우철 시선집』(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의 「저자 약력」, 그리고 사후에 출판된 『문학대사전 1~3』(사회과학출판사, 1999)에 등재된 ‘김우철’ 항

14) 이승이, 「김우철 시 평가 양상을 통해 본 북한 문학사 서술 변화-‘평화적 민주건설 시기’~‘전후복구건설 및 사회주의 기초건설 시기’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76, 어문연구학회, 2013; 이승이, 「시·공간 변화를 통해 본 시인 김우철의 정체성」, 『현대문학이론연구』 53,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목 등을 참조하면 대강 윤곽이 잡힌다. 청년기까지는 『나의 문학 소년 시절』을 참조한 듯 내용이 비슷하다. 이들 북한 자료와 당대의 신문·잡지들을 조사해서 교차 확인하는 것으로 사실에 접근해 보기로 하겠다.

가장 중요한 생몰연대는 ‘1915.9.20~1959.6.17’이라고 연월일을 모두 밝힌 『문학대사전 1』의 것을 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사망 연도가 제각각이거나 자살로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는데,¹⁵⁾ 자살설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김우철이 한설야 숙청 당시 지식인 탄압에 항거하기 위해 “북조선에 문학은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철도 자살했다는 설이다. 이 자살설은 유신시대의 반공주의 증언록을 근거로 한다. 『경향신문』은 ‘유혈 29년 김일성의 숙청극 그 전모’라는 타이틀을 앞세운 기획 연재 『대동강의 증언』을 1974년 4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30회 내보냈다. 글쓴이를 밝히지 않은 이 연재글 중 『대동강의 증언-지식층의 마수·하』(1974.5.4.)에서 김우철의 자살이 언급되었다. 글쓴이는 1962년 12월부터 1963년에 걸쳐 진행된 한설야와 그 추종 작가들에 대한 숙청을 증언하면서 김우철은 철도 자살을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김우철의 자살은 1962년 이후에 일어난 것이 된다.¹⁶⁾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이런 ‘반동작가’가 북한의 문학사전에 오를 리도 만무하거나 설사 오르더라도 사망일이 1959년 6월 17일로 기록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조선작가동맹 기관지 『아동문학』을 조사해 봤더니, 김우철의 작품은 195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보이다가 1959년 3월호에 실린 동시 『오라 조국의 품으로!』 이후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¹⁷⁾ 1959년 6월 17일에 사망했다는 기록은 특별히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철도 자살’ 운운은 더욱 분명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15) 이승이, 『시·공간 변화를 통해 본 시인 김우철의 정체성』, 『현대문학이론연구』 53,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300쪽; 류덕재, 『한국 아동문학비평사를 위하여』, 보고서, 2021, 51쪽.

16) 『대동강의 증언-지식층의 마수·하』, 『경향신문』, 1974.5.4. 자살 시기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문맥상 한설야 숙청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글쓴이는 한설야와 그 추종 작가들의 숙청에 대해 서술하면서 맨 마지막에 “북괴의 지식인 숙청은 현대판 분서갱유로 번졌는데 일제시 창작활동을 해온 증견시인 김우철은 북괴의 지식인 탄압에 항거, “북조선에 문학은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철도 자살했다.”라는 문장을 덧붙이곤 끝을 맺었다.

17) 출처, 『북한의 아동문학-주체문학에 이르는 도정』, 청동거울, 2012, 참조. 이 책에 40여 년간의 『아동문학』 총목차를 부록으로 소개했다.

일제강점기 김우철의 삶과 문학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다. 그의 『나의 문학 소년 시절』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간추리면 이렇하다. 그는 신의주에서 시오리쭈 떨어진 버들 마을 어느 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이홉 살 때(1923년) 이웃마을에 보통학교가 설립되어 입학하여 다니다가 열한 살 때(1925년) 집이 신의주로 이사하여 신의주보통학교로 전학했다. 사촌형이 『어린이』 잡지를 구독한 덕택에 이를 빌려서 빠짐없이 읽었다. 열두 살 나던 해(1926년) 6.10 만세사건이 일어나자 서울로 달려가 시위대에 합류하는 체험을 하고 다음날 돌아왔다. 서울의 만세사건을 동급생들에게 전하고 동맹휴학과 더불어 가두시위에 나섰으나 순검의 총칼에 물리어 다시 책을 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때의 서글픈 마음을 글로 옮겨 『새별』이란 동요를 지어서 백은성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 잡지에 발표한 것이 처음 활자화된 체험이다. 열다섯 살 나던 해(1929년) 신의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이때부터 독서회에 참가하여 계급의식에 눈을 떴고, 『별나라』, 『신소년』의 애독자가 되어 거기에 아동문학 작품을 투고했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사건에 참여하여 퇴학당하게 된 것을 부형들의 간청으로 간신히 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나 일본인 교사를 배척하는 동맹휴학에 또 다시 참가하여 끝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현해탄을 건너가 일본에서 중학교에 다녔다. 1932년 봄에 중학교를 마치고 귀국해서는 잠시 서울에 머무르면서 송영, 박세영을 비롯한 여러 문학 선배들을 만나 창작의 힘을 얻었다. 이때 『신소년』을 편집하던 이동규, 홍구와 가깝게 지내면서 『프롤레타리아 소년소설집』을 함께 엮었다. 다시 신의주로 돌아와서 안용만, 이원우와 더불어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 연구회’를 조직하고 기관지 『별탑』을 4집까지 펴냈다.

여기까지는 북한의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다. 이원우가 작성해서 붙인 「저자 약력」에는 ‘1915년 9월 20일 신의주시에 인접한 의주군 고진면 류등에서 태어났다’고 날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일본 유학 관련해서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글로 “구래시 고봉중학교”¹⁸⁾라고

18) 이원우, 「저자 약력」, 『김우철 시선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135쪽. 인쇄 상태가 좋지 않아서 ‘구래시’인지 ‘구레시’ 또는 ‘구레시’인지 판독하기 힘들다. 정확한 일본어 지명과 교명을 찾지

밝혀 놓았다. 처음 활자화된 것이라고 밝힌 ‘백은성’의 동요 『새별』은 『어린이』 잡지를 살살이 조사해 봤으나 그런 작가명과 작품명 모두 나오지 않는다. 『어린이』의 별책 부록으로 1925년 11월부터 1931년 9월까지 6년 동안 총 46호의 『어린이세상』이 발행되었는데,¹⁹⁾ 이 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여기에 실렸을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는다.

손에 닿는 『별나라』, 『신소년』 자료는 1920년대의 것들이 적잖이 빠져 있어 온전치 못한 형편이다. 이들 잡지에서 확인되는 김우철 최초의 글은 공히 1932년 1월호에 실려 있다. 소년소설 『눈 오시는 밤』(『별나라』, 1932.1)과 평론 『11월 소년소설평』(『신소년』, 1932.1)이 그것이다. 지면과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이보다 앞선 것으로 확인되는 글은 평론 『이동문학에 관하여-이헌구 씨의 소론을 읽고』(『조선중앙일보』, 1931.12.20~23) 하나뿐이다. 홍구는 『이동문학 작가의 프로필』(『신소년』, 1932.8)이란 글에서 김우철에 대해 “군은 현재 활약하는 이동문학 작가들 속에서 제일 연소(年少)하다. 군은 작년 하반기서부터 돌연히 나타난 가장 실력 있는 작가이다. 현재의 활약도 볼 만 하지만 앞으로의 활약을 나는 기대한다.”²⁰⁾라고 적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김우철은 열일곱 살, 일본 중학 시절인 193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한 듯하다.

이동규, 홍구와 가깝게 지내면서 엮었다는 『프롤레타리아 소년소설집』은 당시 “처음 나오는 프로소년소설집”²¹⁾이라고 광고된 『소년소설육인집』(신소년사, 1932)을 가리킬 것이다. 그런데 여기 6인 작가에 김우철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작품집에는 구직회·이동규·승응순·안평원·오경호·홍구의 소년소설 20편이 수록돼 있다. 이 무렵의 이동문학 평론들에서 김우철과 이동규는 서로 뜻을 나누며 소통하는 관계임이 확인되므로,²²⁾ 수록 작가 작

못했다.

19) 장정희, 『『어린이』 부록 『어린이세상』의 아동문학사적 의미』, 『근대서지』 16호, 근대서지학회, 2017, 212쪽.

20) 홍구, 『이동문학 작가의 프로필』, 『신소년』, 1932.8, 29쪽.

21) 『신소년』, 1932.6.

22) 김우철은 『11월 소년소설평』(『신소년』, 1932.1)에서 이동규의 소년소설 『집안싸움』(『별나라』, 1931.10·11 합호)에 대해 “이 작품은 많은 ‘생각’과 뜻 깊은 암시를 주었다.”(33쪽)고 호평했고,

품의 고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수준으로 김우철도 앤솔러지 편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1934년 『별나라』, 『신소년』이 폐간될 때까지 김우철은 이들 잡지에 동요, 소년시, 소년소설 등을 즐기치게 발표했다. 십 대 후반에 가장 왕성하게 작가 활동을 펼친 셈이다.

그는 카프 제2차 검거사건으로 통칭되는 1934년 ‘신건설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수감된 바 있다. 대략 1년간이라고 알려졌는데, 1934년 6월 하순부터 1935년 이른봄까지라고 추정된다. 1934년 6월부터 작품 활동이 중단되고 검거와 재판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다가 1935년 4월에 수필 『봄·북국·농촌』(『조선중앙일보』, 1935.4.27~5.3)을 시작으로 활동이 재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우철의 검거 소식은 1934년 6월 28일자 『조선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신의주발(發) 기사로 처음 나온다. 『전북의 검거사건 국경지방에도 비화(飛火)』라는 제목의 『조선중앙일보』 기사는 “27일 아침부터 (…) 신의주군(新義州郡) 고진면(古津面) 김우철(金友哲) 외에 2명을 신의주 역전에서 체포하여 지금 엄중 취조 중”²³⁾임을 알렸다. 이 후속으로 7월 2일자 『조선중앙일보』는 신의주에서 지난달 검거한 이들을 6월 29일 전북으로 호송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²⁴⁾ 다음 보도는 『동아일보』 1934년 11월 23일자 기사인데, 이것은 사건이 일단락되어 검사국에 송치되었다는 소식이다. “이달에 (…) 사상 선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60여명이 검거되었던 세칭 신건설 관계자 사건이 일단락을 보게 되어 사무국에 송치되었다.”²⁵⁾ 이 기사에서 신의주 지역의 중요 관계자로 “문사 김우철, 안용민”의 이름이 올라 있다. 신건설사 사건과 관련된 김우철의 마지막 소식은 『조선일보』, 1935년 1월 15일자 기사다. “사건 관계에 희미한 자 대부분은 석방되었으며 나머지 30여명은

이동규는 『소년문단시감』(『별나라』, 1932.1)에서 지난해에 “새로이 싸워 얻은 (…) 참으로 힘 있는 작가”(58쪽)로 김우철 외 3인을 꼽았다. 이동규는 『소년문단의 회고와 전망』(『중앙일보』, 1932.1.11.)에서도 “요령부득의 희필(戲筆)”에 불과한 이현구의 평론이 “동지 김우철 군의 통봉(痛棒)에 아주 녹아버린 일이 있다”고 눈길을 보였다.

23) 『전북의 검거사건 국경지방에도 비화(飛火)』, 『조선중앙일보』, 1934.6.28.

24) 『안용민 외 3명 전북 호송』, 『조선중앙일보』, 1934.7.2. 안용민은 김우철이 『나의 문학 소년 시절』에서 이원우와 함께 거론한 안용민과 동일인이다.

25) 『연극으로 반전(反戰) 선전한 ‘신건설’ 관계자 금명간 송국』, 『동아일보』, 1934.11.23.

금14일로 전주지방법원검사국으로 송치하게 되어 금14일은 서류 전부를 송국하고 그 중 2명은 당일로 형무소에 수용하였다.”²⁶⁾는 내용인데, 김우철은 “중요 관계자 씨명” 29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름 옆에 붙인 나이가 25세로 되어 있어 무려 네댓 살 차이가 나지만, 나이의 불일치는 다른 작가들에게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출옥 후에는 『별나라』, 『신소년』이 폐간된 터라 주로 시, 소설, 수필, 평론 등을 발표했다. 드물게도 그는 1936년 6월 4일 신의주에서 또 한 번 검거되는 고초를 겪는다. 6월 6일자 『조선중앙일보』는 「김우철 피검(被檢)」, 『동아일보』는 「문인 등 다수 신의주에서 검거」, 『매일신보』는 「적색결사 획책 청년 등 검거」라는 제목으로 일제히 기사를 냈다. 주요 내용은 ‘6월 4일 오후 김우철 등 수명 검거, 가택 수색, 적색서적과 불온문서 압수, 극비밀리에 취조, 모종의 비밀결사를 조직하려다 발각, 검거는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 등이다.²⁷⁾ 유독 김우철의 이름만 언급된 것을 보면 그가 신의주 지역의 주도자 급이었던 듯하다. 6월 11일자 『매일신보』는 그를 서울의 종로서로 압래(押來)했다는 후속 기사를 낸다. 「종로서고등계사건 김우철도 압래」라는 제목인 바, 이 기사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고유명사들이 보인다.

부내 종로의 고등계에서 이달 초순경에 남경군관비행학교에 적을 둔 김신형(金梓滢)²⁸⁾과 정세호(鄭世鎬)를 검거 압래(押來)하고 그후 시내 각처로부터 다수의 청년을 검거하여다가 엄중 취조 중이라 함은 누차 보도한 바이어니와 지난달 하순경에 신의주서에 검거된 김우철(金友哲)(²⁷⁾도 종로서로 압래하여다가 극비밀리에 취조를 개시하고 있는데 취조 여하에 따라 사건은 점차 확대될 듯하며 안재홍(安在鴻), 이승복(李昇馥) 양씨는 수일중에 석방될 듯하다는데 지금까지 검거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김신형(金梓滢), 정세호(鄭世鎬), 정한무(鄭漢武), 김춘우(金春雨), 유권봉(劉

26) 『프로문사 등 30여명 신건실사 사건 송국』, 『조선일보』, 1935.1.15.

27) 「적색결사 획책 청년 등 검거」, 『매일신보』, 1936.6.6; 「김우철 피검」, 『조선중앙일보』, 1936.6.6; 「문인 등 다수 신의주에서 검거」, 『동아일보』, 1936.6.6.

28) ‘김신형(金梓滢)’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한 원문대로 옮긴 것인데 한자어대로 읽으면 ‘김재형’이다.

權峰), 오세호(吳世鎬), 허석천(許石川), 김송일(金松一), 김우철(金友哲), 안재홍(安在鴻), 이승복(李昇馥)²⁹⁾

김우철에게만 나이가 병기되어 있는데 역시 네댓 살 차이가 난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김우철, 남경군관비행학교, 안재홍’의 관계는 앞으로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후속 보도가 없어 김우철이 ‘남경군관비행학교 사건’에 어떻게 엮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위의 기사는 안재홍이 수일중에 석방될 듯하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1년여에 걸친 예심 끝에 1937년 10월 징역 2년을 선고받는다.³⁰⁾ 이 사건을 전후로 김우철의 작품 발표가 눈에 띄게 중단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의 구속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1934~5년의 수감 생활 뒤에도 계속된 피검 사실에서 신의주 지역 적색활동의 핵심인물로 감시의 대상이 되었던 그의 한결같은 저항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김우철의 작가 활동에서 드러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뚜렷한 지역성(locality)이다. “나는 지금 천리를 격한 북국의 압록강변에 살고 있다.”³¹⁾고 토로하는 수필도 보이거니와 ‘북국’, ‘신의주’, ‘압록강’이라는 어휘가 등장하거나 그곳을 배경으로 삼은 작품들이 상당하다. 소년시 『북국에 보내는 편지』(『신소년』, 1932.10), 소품 『북국점경』(『신소년』, 1933.10), 시 『북국의 봄』(『신인문학』, 1935.6), 소설 『양류촌』(『조선문학』, 1936.11), 그리고 수필 『황금섬·유초도 점경-알뜰강상에 나앉은 섬 속에서』(『신인문학』, 1935.4), 『봄·북국·농촌』(『조선중앙일보』, 1935.4.27~5.3), 『압록강 기행-강상의 풍경 화폭』(『신인문학』, 1936.3), 『삼도낭두(三道浪頭) 탐방기』(『조선중앙일보』, 1936.5.16~17) 등이 그런 것들이다.

29) 『종로서고등계사건 김우철도 압래』, 『매일신보』, 1936.6.11.

30) 독립기념관 편,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의 ‘안재홍(安在鴻)’ 참조. “1936년 6월 남경군관학교학생사건(南京軍官學校學生事件)으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정세호(鄭世鎬), 김재형(金在滢)에게 국내 정세에 대한 동향과 운동자금·운동방침을 요구받은 사실로 검거되어 취조를 받았다. 1년여에 걸친 예심 끝에 1937년 10월 징역 2년을 받았다.”(여기 인용은 인터넷 검색 자료에 의거한 것이다. Daum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05XX79100139>)

31) 김우철, 『서울, 그리운 성북동-잔디밭의 추억을 더듬어서』, 『신인문학』, 1935.4, 79쪽.

국경도시 신의주의 삶과 현실을 애타케 응시하는 이 글들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루더라도, 1935년에 발표된 『대륙의 생활고(生活苦)! - 동경(憧憬)의 만주란 이런 곳!』(『신인문학』, 1935.3)이라는 수필 하나만은 각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은 “남국의 R형”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면에서 문제적이다. 첫째는 김우철의 이력과 관계된 내용이라는 점, 둘째는 만주국 건립 이후의 지배담론에 역행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글의 서두에는 그가 계모의 학대 밑에서 자랐으며, 이십대 초반에 만주로 건너가 3년 동안 시달리는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나온다.

이 글발은 만주에서 삼 년 동안 시달리는 나의 생활의 적나라한 눈물의 기록이다. 뿐 아니라 지금 한창 동경(憧憬)의 적(的)이 되어 있는 만주란 어떤 곳이라는 것도 자명하게 될 것이요. 아마 형도 이것이 껍도 알고 싶으리라.

계모의 학대 밑에서 인종(忍從)의 생활을 이십 년 동안이나 계속해 온 나로서 새로운 희망을 불안고 한 즐기 생도(生道)를 이곳 만주의 별판에서 찾으려고 표랑의 여로를 떠난 것은 너무나 사리에 당한 행동인 줄 믿소.³²⁾

이하의 내용은 만주 체험을 매우 구체적으로 전하는 생활수기를 보는 듯하다. 순서대로 간추리면 이러하다. 1932년 6월 만주 개원(開原)에 들어와서 아무 직업도 가지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먼저 들어와 있는 친형의 덕택으로 『조선일보』 개원지국을 맡았다. 부수가 얼마 되지 않아 『신동아』, 『어린이』 등을 함께 판매했다. 이도 여의치 않아서 1933년 이른 봄에 지인의 소개로 어떤 과자점의 ‘주문도리’란 일자리를 맡았다. 집주인이 급료를 주지 않아서 다투고 나온 뒤로 신문 배달을 하면서 중국어를 익혔다. 1933년 10월 초순 세탁소의 ‘주문도리’로 직업을 변경했다. 세탁소가 만철(滿鐵)사원 소비조합 부속이라서 조선민회의 혜택으로 만철조선인 채용시험 정보를 알게 되었고 필사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했다. 개원에서 같이 합격한 조선 사람이 넷인데

32) 김우철, 「대륙의 생활고(生活苦)! - 동경(憧憬)의 만주란 이런 곳!」, 『신인문학』, 1935.3, 105쪽.

자신은 대석교역(大石橋驛)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 네 사람이 제각각 위협성 많은 격무로 인해 한 사람은 즉사하고 나머지 셋도 불구자가 되었는데, 자신은 사고로 발을 절단한 몸이다. 그리하여 지금 대석교병원에서 의족을 달고 허망하게 지내고 있다.

여기까지 자신의 3년간 고초를 소상하게 밝힌 뒤, 만주의 꿈을 품고 건너 온 조선인들의 비참한 생활을 전하면서 거기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다. “우리 사람은 지나인과 내지인 사이에 끼어 고통” 받는다는 것, 그리하여 “조선인이 경영하는 상업은 대개 약장사, 즉 이편 장사”라는 것, “만주국이란 농민들의 도박장”이나 다름없어서 “이곳 농사꾼은 투기농사를 짓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 이곳의 조선민회는 남도 출신과 북도 출신으로 갈리어 “개와 고양이” 사이처럼 벌어져 있다는 것, 결론적으로 “지금쯤 젊고 혈기 방탕한 청년은 천금몽(千金夢)을 꿈꾸며 압록강 철교를 건너오지만” “만주 대륙의 생활고”가 이러하기에 만주 동포 누구나 애타게 고향마을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고 있다는 것이다.³³⁾

구체적인 체험을 전하는 서간문인데다가 나이와 행적에 비추어 이 글의 화자를 김우철로 여기기 쉽다. 실제로 김우철이 3년간 만주체험을 했다는 연구물들도 있다.³⁴⁾ 그러나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너무나 많은 충돌이 발생한다. 김우철이 가장 왕성하게 작가 활동을 펼친 시기에 앞서 본 만주 체험을 겹쳐 놓아도 괜찮은가? 그는 의족을 착용한 불구자로 살았는가? 결정적으로 글의 말미에 “소화10년[1935년] 정월 1일 탈고”라고 밝혔는데, 이때는 1934~5년 신건설사 사건으로 구속돼 있었던 시기다. 여러모로 이 수필은 허구의 화자 ‘나’를 앞세운 서간문체 생활수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픽션의 생활수기류는 계급주의 고조기의 아동잡지에서 흔히 발견된다. 일례로 ‘공장에서, 농촌 현장에서’라는 구호를 내걸고 『어린이』가 계급주의 성향을 띠었을 당시의 서간문, 일기문, 보고문 형식으로 발표된 수많은 생활수기는 거개가 픽션에 가까웠다. 물론 대다수 생활수기의 투고자는 신원을 알 수 없

33) 김우철, 위의 글, 109~110쪽.

34) 이승이, 앞의 논문 300쪽; 류덕제, 앞의 책, 50쪽.

어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편집자가 청탁한 것으로 짐작되는 기성작가들의 생활수기를 조사해 보니 모두 필자의 신원과 실제 이력하고는 달랐다.³⁵⁾ 김우철의 만주 체험기도 이런 종류로 봐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김우철의 다른 수필들마저 픽션인지 아닌지 의심할 이유는 없다. 그의 수필들은 향토성이 매우 짙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에 와 닿은 신의주 지역의 삶과 현실을 보고문 쓰듯이 그려낸 것들이다. 만주에 대한 관심은 조·중 접경지대 신의주 출신의 작가로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더욱이 1930년대 만주는 지식계의 뜨거운 이슈가 아니었던가. 중요한 것은 김우철의 만주 인식이다. 만주국 건립 이후 일제의 대륙 진출과 이주 정책이 본격화한 시기에 『대륙의 생활고(生活苦)! - 동경(憧憬)의 만주란 이런 곳』을 발표하면서 ‘만주 유토피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³⁶⁾ 이로부터 두 해쯤 지나 중일전쟁 직전에 발표한 『왕매란과 순이』 또한 일제의 식민화 및 침략 정책과는 다른 시각으로 한중 관계에 대해 올바른 모색을 보여준 작품이다. 특이한 것은 이것이 일제강점기 김우철의 마지막 글이라는 사실이다. 이후로 해방이 되기까지 그에 관한 어떤 소식도 찾아볼 수 없다.³⁷⁾

3. 신의주 반중국인 폭동의 소설화

『왕매란과 순이』는 『가톨릭소년』 1937년 6월호, 7월호에 두 차례 나뉘어 실렸다.³⁸⁾ 제목 옆에 ‘소녀소설’이라는 갈래명이 붙어 있는데, 이는 소녀들의

35) 참고, 『『어린이』와 계급주의』, 『한국학연구』 4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207쪽.

36) 만주국 건립 이후 “‘복지 만주’의 꿈,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지식인들”(234쪽)의 양상에 대해서는 정종현, 『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 - ‘만주국’ 건국 이후의 소설을 중심으로』(『한국문학연구』 2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를 참고하기 바란다.

37) 해방 직후 김우철은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1945.9.17)과 북한에서 결성된 평북지구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중앙위원, 시(詩)위원으로서 활발하게 작가 활동을 전개했다. 자세한 것은 줄지, 『북한의 아동문학 - 주체문학에 이르는 도정』(청동거울, 2012)을 참고하기 바란다.

38) 만주 길림성 연길교구에서 발행한 『가톨릭소년』(1936.3~1938.8)은 전국성을 띠기 어려웠던 탓에 주

이야기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편집자가 임의로 붙였을 가능성이 크다. ‘소녀소설’은 동화나 소년소설처럼 기본갈래로 자리잡지 못했으므로, 분류하자면 소년소설에 속한다. 지금은 아동문학의 서사갈래를 대개 동화라고 부르지만, 과거에는 동화와 소년소설을 구분했다. 소년소설은 동화의 독자보다는 연령대가 더 높은 십 대 독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소설처럼 현실성이 짙은 작품을 가리켰다. 오늘날의 청소년소설까지 아우르는 명칭이었다.

이 작품은 1인칭 시점의 어른이 자신이 겪은 두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식으로 서술되었다. 부드러운 경어체로 되어 있으나 소설과 다름없이 객관적으로 정황을 묘사했다. 배경은 신의주 근방이다. 원문 그대로 첫 장면을 살펴보자.

북쪽나라의 겨울은 몹시 치웁습니다. 함박눈에파묻힌 마을의 초가집웅뒀에서 가난한농사꾼들은 추움과 싸우며 움츠리고잇었습니다.

어느날-. 그날은 봄날같이 따스한해별이 장글장글 내려쬐는 바람한점없이 조용한 일기였습니다. 나는 양지쪽 토방굽에 나와앉아서 따스한 별을 마음껏 드러마시고 이셨습니다.

“영길이 잇습마? -어어?”

하고 짜리문밖에서 나를찾는 목소리가 잇었습니다. 나는 들엇든 잡지책을 덮어두고 일어서서 밖에나갔습니다. 문밖에는 텃쉬부리 귀녀(貴女)아범이 집팡이에 몸을의지하고 서잇었습니다.

“어떻게 오섯수?.....호호!”

그때 나는 귀녀아범뒤에 지나복(支那服)입은 나어린소녀가 고개를 폭숙이고 잇는 것이 선뜻 눈에띄였습니다. 얼른보는 눈에도사랑스러운 소녀이었습니다.

“응.....좀 부탁할일이 잇는데.....저 돼년아(中國少女)를 좀보시디나”

귀녀아범은 고개를돌려 그소녀를 가르칩니다.³⁹⁾

로 간도와 이복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수록했다. 이 잡지의 발간과 운영에 대해서는 최기영, 『1930년대 『가톨릭소년』의 발간과 운영』(『교회사연구』 33,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을 참고하기 바란다.
39) 김우철, 『왕매란과 순녀』, 『가톨릭소년』, 1937.6, 26쪽.

귀녀아범이 중국소녀를 데리고 방문했을 때 ‘나’는 잡지책을 읽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작가가 직접 화자로 나선 작품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김우철은 줄곧 신의주에서 작가 활동을 펼쳤고 신의주는 1931년 반중국인 폭동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던 곳이다. 소년소설에 흔치 않은 ‘어른 1인칭 시점’은 작가가 실제 경험을 들려주는 것 같은 사실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서술 전략이라고 하겠다.

작품은 3장으로 되어 있다. 1장은 중국 봉천(奉天)에서 순녀를 찾아 무작정 강을 건너 온 중국소녀 왕매란을 자기 집에 맡게 된 사정, 2장은 오갈 데 없는 고아 신세로 전락한 왕매란이 들려주는 그간의 사연, 3장은 마침내 왕매란과 순녀가 눈물로 상봉하는 장면이다. ‘현재(1장) - 과거(2장) - 현재(3장)’로 이어지는 액자식 구성인바, 작가의 의중이 실린 본편은 핏줄이 다른 두 소녀의 친교가 당시 만연한 민족적 차별과 혐오로 위협 받는 모습을 그린 2장이다.

2장은 매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작중 화자가 대신 전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매란네는 “지금으로부터 팔구년전”에 신의주로 흘러 들어와서 조그만 잡화방을 했는데, 그 맞은편에 순녀네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매란과 두 살 위인 순녀는 단짝동무로 지냈다. 매란이 열 살, 순녀가 열두 살 때 두 소녀는 근방에 있는 사립여자강습소에 들어갔다. “가난한집에 태어난 두소녀는 무산아동을 갈으켜주는 사립강습소에 때늦은입학을 했든 것”이다. 이곳에서 두 소녀의 생활은 극심한 따돌림의 연속이었다.

그때만 하여도 매란이는 조선옷만 입으면 누구나 조선계집애로 볼만큼 조선말에 능란하였습니다.

그렇나 그학교(강습소)의 조선계집아이들은 왕매란이를 “되년아”라고 놀려대며 “짱꿀로!”라고 모욕해주었습니다. 그러다고 왕매란의 편을들어 동무들의떨시와 욕설을 변호하여 주기에 애를태는 순녀까지도 아이들은

“저에도 짱꿀라간냐! 엇저른 저런 돼년아편을 든담”

하고 입을 뻗죽거리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⁴⁰⁾

신의주는 안동(安東)과 강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접경지대라서 두 도시의 양국 친선 관계가 남달랐다고 한다.⁴¹⁾ 그럼에도 시대의 수상한 그림자가 드리운 탓인지 중국소녀를 혈뜬 여학생들의 사나운 일상이 흰히 그려져 있다. 이렇게 지내던 중 만보산 사건이 터지고 그 여파가 급속히 번져나간다.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서술했다.

동무들의 기억에도 아직 새롭겠지만 그해 늦은겨울부터 만주를중심으로한 무섭고 진저리치는 싸흠이터져 질질끌었습니다. 그러한 무서운 분위기속에 겨울도 물러나고 일은봄 봄도 오월달이었습니다.

아마 그달인가 싶습니다. ‘만보산사건’이 돌발되자 이여향이 조선각지에 파급되어 평양 경성 진남포 인천-등지를 위시하여 국경도시인 신의주까지 밀려와서 중국인××사건이 한참 뒤설레일무렵에 왕매란의 아버지왕서방은 이참극에 휩쓸려 들어서 그만 뜻밖에 불귀의객이되고 말었습니다.⁴²⁾

“오월달”을 음력으로 치면 만보산 사건과 맞아떨어지는데 “이른봄”이라고 한 까닭은 알 수 없다.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만보산 사건’과 나란히 ‘중국인××[학살]사건’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일제강점기의 작품은 이 소년소설이 유일하다. 소설이었다면 매란의 아버지 왕서방의 “참극”에 초점이 주어졌을 테지만, 여기에서는 매란과 순녀에 대한 폭행 장면이 눈길을 주었다.

매란이는 그날 압박의눈물겨운 죽엄도 전연몰고 강습소에서 여러아이들에게 가진육과 얇은 매를 실컷어더맛고 코피를흘리며 쪽쪽울고잇섯습니다. 순녀는 가엾은 매란이를 위하야는 참된우정에서 죽을힘을 다하야 변호하엿습니다.

그러나 참일을 말하는 리론도 그들의 앞에는 쓸대없었습니다. 여러애의주먹은

40) 김우철, 『왕매란과 순녀』, 『가톨릭소년』, 1937.7, 33쪽.

41) 이은자·오미일, 『1920~1930년대 국경도시 신의주의 華工과 사회적 공간』, 『사총』 79,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3, 348쪽.

42) 김우철, 위의 글, 33~34쪽.

두소녀의 발악을 쥐여박기에는 너무도 강했든것입니다. 순녀도 어더맛잇습니다. 그렇나 자기몸 보다도 매란이를 생각하고 애뜻한 마음이 더욱컷든것입니다. 매란이를 안고 그 자리에 쓸어져서 채우고 어더마짓습니다.⁴³⁾

차별과 혐오에서 비롯된 살벌한 ‘묻지마 폭행’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광경을 목격한 교사가 두 소녀를 구해낸다. 이튿날 밤 매란과 그의 어머니는 경관의 보호 밑에 봉천행 열차를 타고 떠난다. 매란은 갖은 고통과 함께 봉천에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어머니마저 호열자로 눈을 감게 되어 고아 신세가 된다. 이후로 어찌어찌 ‘봉천-안동’을 거쳐 순녀를 만나려고 무작정 신의주로 건너왔으나 순녀네는 이사를 가서 어디로 옮겨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3장은 다시 현재 상황이다. 사연을 전해들은 ‘나’는 막연히 매란과 함께 파출소를 찾아갔고, 놀랍게도 며칠 후 순사가 “자랄때로자란 인제는 처녀티 가백힌” 순녀를 데리고 방문한다. 누구 못지않게 순녀를 반기는 ‘나’와 뒤엀킨 두 소녀의 해후는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아아 순녀! 잘왔다 잊저른 이눈보라에!”

“네에 괜찮어요. 그런데 아이참 왕매란이란 중국소녀는 어딴나요! 네에?” “너를 어찌도 기다렸쌌는지……참. 얼른 들어와서 안어줘라”

나의말이 채떠러지기도 밧부게순녀는 내우도없이 우리집 안방으로 뛰어들어 갑니다.

“아이 순녀! 반가워라” “너 어떻게 찾아왔니? 응” “아아 순녀야 난정말네가보고 파서 잠이오지를 안엇단다야”

“난 네가왔단 소식듯고 아버지가 말리시는것도 뿌리치고 급하게 오느라고 혼났단다야아. 네가 어찌두 보구푸든지-참”⁴⁴⁾

43) 같은 곳.

44) 김우철, 위의 글, 36쪽.

여기 대화 장면은 모두 단락 구분이 돼 있었던 것을 편집자가 마지막 쪽수에 꼭 차게 맞추느라고 몇 군데 이어붙인 것으로 보인다. 액자식 구성이라 했지만, 2장과 더불어 이 짝막한 3장의 해후 장면도 뜻이 깊다. 민족적 차별과 혐오에 대한 눈물겨운 극복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날밤의 아기작이한 이야기”는 “참된 눈물에 울고저하는 독자들의 상상에 맞겨들 따름”이라면서 작품은 끝이 난다.

김우철은 아동문학뿐 아니라 시, 소설, 평론, 수필 등에서도 자취가 뚜렷하다. 신진설사 사건을 겪고 『별나라』, 『신소년』이 폐간된 뒤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렇다면 반중국인 폭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굳이 어른 화자를 내세운 소년소설로 창작한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라서 소설로는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쳐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둘째는 사건의 참혹성과 고발에 초점을 두면 검열과 부딪치기 쉬우니까 동심을 간직한 소녀들의 우정을 그리면서 폭력 사태를 야기한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두려고 했다는 점,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주지하듯이 대다수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은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작가 활동의 대변환을 겪는다. 그런데 김우철은 바로 그 시점에 만보산 사건과 반중국인 폭동을 불러와서는 그 비극성을 돌아보는 작품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십 대 후반부터 장르를 넘나들며 즐기치게 활동을 벌여온 젊은 작가가 우리나라이 스물셋에 이 작품을 끝으로 해방이 되기까지 절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헤아릴 길이 없다.

김우철은 만주사변 이후의 식민화 정책에 역행하는 만주 인식을 드러냈다고 앞서 지적했는데, “1932년 봄에 중학을 마치고 조선에 돌아온”⁴⁵⁾ 그러서는 1931년 반중국인 폭동의 실제 목격자는 될 수 없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것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작품화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변화하는 시국과 만주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는 점만은 명백한 사실이다. 1934년 여름부터 1935년 봄까지 1년간의 투옥생활을 지냈고 1936년 6월 신

45) 김우철, 「나의 문학 소년 시절」, 『아동문학』, 1957.10, 70쪽.

의주에서 또 다시 피검된 사실, 중일전쟁 이후 ‘신체제기’에 일절 활동 소식이 없는 것, 그리고 해방 후 북한에서의 주요 활동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의 반제국주의 시대의식은 누구보다 확고했던 듯하다. 여타의 만보산 사건 관련 작품들과 비교해서 『왕매란과 순녀』는 친일협력의 문제로부터 한층 자유롭다는 얘기다.

한 가지 의문이라면, 작품 발표 시점과 시간적 배경 사이에 적잖은 간극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1937년에 발표한 작품인데 만보산 사건이 ‘작년 일’로 그려져 있지 않은가? 먼저 작품에 그려진 시간적 배경을 꼼꼼히 추적해 보자. 왕매란은 “지금으로부터 팔구 년 전” “나이 사오 세 때”에 중국 봉천에서 신의주로 흘러왔다. “매란은 열 살, 순녀는 열두 살” 때에 두 소녀는 사립 여자 강습소에 들어갔다. 이로부터 두 해가 지났을 때 “만보산 사건”이 돌발된다. 중국에서 어머니마저 여의고 다시 돌아온 매란은 지금 “열세 살”이다. 만보산 사건이 터진 1931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매란네가 조선으로 흘러온 것은 1923~4년(네댓 살), 사립강습소에 들어간 것은 1929년(열 살)이다. 그렇다면 매란은 만보산 사건이 터진 1931년(열두 살)에 변을 당하고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1932년(열세 살)에 다시 순녀를 찾아온 것이 된다. 작품 발표 시점(1937년)과 작품 속 현재(1932년) 사이에 5년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액면 그대로 보자면, 만보산 사건 이듬해에 지은 작품을 5년쯤 지나서 발표한 것일 수 있다. 1932년경 김우철은 『별나라』, 『신소년』 등에 잇달아 작품을 발표하면서 계급문학의 유망주로 떠오른 신예작가였다. 만보산 사건-만주사변-만주국 건립 등으로 숨 가쁘게 이어지는 국면에서 만보산 사건과 반중국인 폭동을 다룬 작품을 발표하기란 십 대 후반의 작가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1934~5년경에는 신건설사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보냈고, 1936년에도 검거된 바 있다. 형편상 오래 묵힌 작품을 뒤늦게 발표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내세우기 어려운 추론이 아닐까 한다.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 보자면, 작품 속 현재를 발표 시점보다 몇 년 앞으

로 당겨야만 작가가 뜻하는 것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잘 따져보자. 왕매란과 순이가 1931년의 만보산 사건을 각각 열두 살과 열네 살에 겪은 것을 그대로 두고 작품 속 현재를 1937년의 발표 시점과 일치하게끔 그렸다면, 두 소녀의 현재 나이가 열여덟 살과 스무 살에 이르게 되므로 소년소설과 썩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왕매란과 순이의 현재 나이가 열세 살과 열다섯 살인 것을 그대로 두고 작품 속 현재를 1937년의 발표 시점과 일치하게끔 그렸다면, 두 소녀는 1931년의 만보산 사건을 일곱 살과 아홉 살에 겪은 것이 되므로 사립 여자 강습소의 살벌한 집단 폭행 장면과 썩 어울리지 않는다. 요컨대 작가는 5년의 간극이 생길지언정 두 소녀가 겪은 혐오 폭력 사건-신의주 반중국인 폭동의 직접적인 피해와 희생-을 꼭 그려 넣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만보산 사건이 순식간에 대규모 ‘중국인 학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단지 오보 기사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이 땅에 ‘쿨리(苦力)’라고 불리는 저임금 중국인 노동자가 급증한 1910년대 이래 조·중 노노갈등(勞勞葛藤)이 빈번했다는 사실에 비추어,⁴⁶⁾ 1931년의 반중국인 폭동은 누누이 쌓여온 차별과 혐오 의식이 낳은 참극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작품에서 확인되듯이 귀녀아범과 순녀의 부모조차도 ‘되년아’ ‘짱꼴라’ 같은 중국인 비하와 혐오 표현이 입에 붙어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한순간에 사립 강습소 여학생들의 폭행으로 돌변하는 것을 작가는 예리하게 포착했다. 나이가 이런 민족적 차별과 혐오는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것임을 매란과 순녀의 우정을 통해 보여준 것이다.

4. 맹목적 애국주의에 대한 해독 작용

김우철의 「왕매란과 순녀」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소년소설이므로 우선

46) 자세한 것은 전우용, 「한국 근대의 화교 문제」(『한국사학보』 15, 고려사학회, 2003)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동문학의 자리에서 검토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해방 전 우리 이동문학은 외국인을 등장시키는 데 무척이나 인색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극동 지역을 오가는 이주 노동자가 적지 않았고 식민지 농촌 경제의 파탄으로 수많은 유이민이 발생했음에도 그러했다. 일제강점기 내내 일본인이 나오는 이동문학 작품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예사일일까? 거의 중국인을 부정적으로 그려낸 작품들만 손가락에 꼽히는 정도였다. 순혈주의에서 비롯된 배외사상의 반영일는지 몰라도 여러모로 아쉬운 게 사실이다.

오늘날 만보산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매우 드문 데 비해서 이 사건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시점에 발표된 김동인의 『붉은 산』(『삼천리』, 1932.4)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평양 출신 김동인도 자신이 겪은 반중국인 폭동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⁴⁷⁾ 그런데 김동인의 회고록은 앞에서 살핀 오기영의 것과는 사뭇 성격이 다르다. 김동인은 벌거벗은 영아(嬰兒)의 시체를 엮기적으로 묘사하면서 “진기한 광경”에 대한 구경꾼의 태도를 숨기지 않았고, 자신도 중국인 상점의 “비단과 포복”을 미친 듯이 찢었다면서 군중심리에 휩쓸린 가해의 순간을 성찰 없이 드러냈다. 만보산 사건 이듬해에 발표된 『붉은 산』은 만주를 배경으로 악독한 중국인 지주에게 맞아죽는 ‘삼’이라는 별명의 부랑자에게도 동포애와 애국심이 뜨겁게 살아있음을 그려낸 작품이다. 참혹함이 극에 달한 평양 반중국인 폭동을 몸소 겪고서도 중국인을 향한 적개심만 뽐낼 뿐, 당대의 맥락에서 ‘민족의식의 오용’을 경계하는 태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학창 시절에 교과서와 단골 시험문제로 이런 작품을 되풀이 접한다면 껍질뿐인 애국주의에 속절없이 빠져들기 쉽다. 이게 일제강점기 민족의식을 양양한 저항문학일까? 발표 후 거의 주목되지 않던 김동인의 『붉은 산』은 중일 전쟁이 한창일 때 일본어로 번역되어 어느 정도 국책사업에 이용된 바 있다.⁴⁸⁾ 이 작품의 동포애가 해방 후 반공 애국주의와 결합해서 국민동원의

47) 김동인, 『유서광풍에 춤추는 대동강의 악몽-3년 전 조중인(朝中人) 사변의 회고』, 『개벽』 신간2호, 1934.12.

48) 신건(申建)이 번역한 『朝鮮小說代表集』(東京: 教材社, 1940)에 수록되었다. 자세한 것은 정혜영,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만주-『붉은 산』과 만보산 사건의 수용』, 『어문논총』 34, 경북어문학회,

지배관념을 유포하는 데 활용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작가의 명성과 텍스트의 선정성에 가려져서 그렇지 『붉은 산』은 인물의 개연성이 형편없는 작품에 속한다. 이에 비한다면 『왕매란과 순녀』는 다소 소박하게 보일지라도 개연성과 시대성이 잘 어우러진 문제작이다. 이런 종류가 『붉은 산』류의 맹목적 애국주의에 대한 해독 작용을 톡톡히 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는 아동문학 분야뿐 아니라 한국문학과 역사학 쪽에서도 김우철의 『왕매란과 순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가톨릭소년』, 『개벽』, 『경향신문』, 『동광』, 『동아일보』, 『매일신보』, 『문장』, 『별나라』, 『삼천리』, 『신소년』, 『신인문학』, 『아동문학』, 『어린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김우철, 『김우철 시선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_____, 『나의 문학 소년 시절』, 『아동문학』, 1957.10.

『문학 대사전』 1~3, 사회과학출판사, 1999.

2. 저서

김재용 편, 『만보산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 2010.

류덕제, 『한국 아동문학비평사를 위하여』, 보고서, 2021.

박영석, 『만보산 사건 연구 - 일제 만주 침략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아세아문화사, 1978.

원종찬, 『북한의 아동문학 - 주체문학에 이르는 도정』, 청동거울, 2012.

3. 논문

고명철, 『동아시아 반식민주의 저항으로서 일제말의 '만주 서사' - 이태준의 '농군'과 한설아의 '대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49, 한국문화회, 2008.

김재용, 『친일문학의 성격 규명을 위한 시론』, 『실천문학』, 2002년 봄호.

김준연, 『한국의 문학/지식 장에서 '만보산 사건'이 기억되어 온 몇 가지 방식』, 『한국학연구』 51,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김 철, 『몰락하는 신생 -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 『상허학보』 9, 상허학회, 2002.

박금숙, 『1930년대 『가톨릭소년』지의 아동문학 상상』, 『한국아동문학연구』 34, 한국아동문학학회, 2018.

손승희, 『1931년 식민지 조선의 배화폭동과 화교』, 『중국근현대사연구』 41, 중국근현대사연구회, 2009.

원종찬, 『『어린이』와 계급주의』, 『한국학연구』 4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_____, 『차별과 혐오를 이겨낸 소녀들 - 김우철 『왕매란과 순녀』 발굴에 붙여』, 『창비어린이』, 2021년 가을호.

윤상원, 『한국 역사학계의 만보산 사건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학연구』 51,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윤해동, 『'만보산 사건'과 동아시아 '기억의 터' - 한국인들의 기억을 중심으로』, 『사이間SAI』 1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이경훈, 『만주와 친일 로맨티시즘』, 『한국근대문학연구』, 4권 1호, 한국근대문화회, 2003.

이상경, 『1931년의 배화사건과 민족주의 담론』, 『만주연구』 11, 만주학회, 2011.

이승이, 『김우철 시 평가 양상을 통해 본 북한 문학사 서술 변화 - '평화적 민주건설 시기'~'전후북구건설 및 사회주의 기초건설 시기'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76, 어문연구학회, 2013.

_____, 『시·공간 변화를 통해 본 시인 김우철의 정체성』, 『현대문학이론연구』 53,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이은자·오미일, 『1920~1930년대 국경도시 신의주의 華工과 사회적 공간』, 『사총』 79, 고려대학교 역사연

구소, 2013.

- 장영우, 『「농군」과 만보산사건』, 『현대소설연구』 31,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 장정희, 『「어린이」 부록 「어린이세상」의 아동문학사적 의미』, 『근대서지』 16호, 근대서지학회, 2017.
- 전우용, 『한국 근대의 화교 문제』, 『한국사학보』 15, 고려사학회, 2003.
- 정병욱, 『1931년 식민지 조선 반중국인 폭동의 학살 현장 검토』, 『사총』 97,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9.
- 정종현, 『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 - ‘만주국’ 건국 이후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
- 정혜영,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만주 - 『붉은 산』과 만보산 사건의 수용』, 『어문논총』 34, 경북어문학회, 2000.
- 최기영, 『1930년대 『가톨릭소년』의 발간과 운영』, 『교회사연구』 33,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 하재연, 『‘신체제’ 성립 전후의 한국근대문학 연구방법론 고찰 - 이태준의 『농군』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5, 2008.
- 하정일, 『1930년대 이태준 문학과 내부 식민주의 성찰』, 『배달말』 34, 배달말학회, 2004.
- 한수영, 『이태준과 신체제 - 식민지배담론의 수용과 저항』, 문학사상연구회 편, 『이태준 문학의 재인식』, 소명, 2004.


* 부록: 김우철, 「왕매란과 순녀」 원문자료 사본

26

少女水說

王梅蘭 順世

友哲



(一)

북쪽나라의 겨울은 몹시 추웠습니다. 함박눈
에과문힌 마을의 초가집을밀에서 가난한농사
꾼들은 추움과 싸우며 음추리고있었습니다。
어느날이. 그날은 봄날같이 따스한해벌이
창글창글 내려쬐는 바람한전없이 조은한 일
기있습니다. 나는 양지쪽 도방굴에 나와앉어
서 따스한 벌을 마음껏 드리마시고 이섯습
니다.

「정말이 잇습마? 어어?」
하고 쓰리문밖에서 나를찾는 목소리가 잇
섯습으로 나는 들엇든 잡자배를 덮어두고

인어서서 밖에나갔습니다. 문밖에는 얇석부러
순녀(貴女)아범이 집깡이에 돈을의지하고 서
잇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수?.....호호!」
그때 나는 귀녀아범뒤에 지나복(支那服)입
은 나어린소녀가 고개를 푼숙이고 잇는것이
선뜻 눈에 띄엇습니다. 얼른보는 눈에 도사랑스
려운 소녀이잇습니다.

「응.....참 부락할일이 잇는데.....저 돼
년아(中國少女)를 춤보시다나」
귀녀아범은 고개를돌려 그소녀를 가르칩니
다. 중국소녀는 숙엇든 고개를 가웃이들고

나와 귀녀야별을 편가보고 있습니다. 영양부
추신지 음복패순 두빵. 안으로 귀여들이간
두눈. 철색이 총치못한 열들빛. 열른보기엔
멧얼굴은에 같았습니다. 그렇나 어딘지몰르게
사랑스러운점이 드러나되고 환긱을상하게 눈
에들었습니다.

「좀 안으로 드려갑시다. 아무도 없는데」

「그래 그러지. 조용이 어이기도할경...」

귀녀야별은 중국소녀를 이리오라고 손짓하
며. 나의뒤를따라 안마당에 들어섭니다. 소녀
도 좀 주저하다가 안으로 따라들어섰습니다.

「오늘 내가늘일이 좀 있어서 거리에 갔다

오는길에 저애를 길에서 맛냈는데 저애의말
을들으면 멧달전까지 우리동리에살는 순녀

(順女)네집을 찾어온다고그래!」

방안에 들어와앉으면서 아별은 천천이 입
을열었습니다. 하얀 수열이불은 헛석부러수열
을 나리쓰다들으면서

「오늘은 일기가 좀 따수해져지말 이치위
에...호호. 차아 너 이리은. 이화도들열

에!...」 나의말을 진작하는지 화로불열에
와서 쪼그리고있는 그소녀의몸에는 연제
가라앉는지몰을 매우지두든 남은~~웃~~이 질
쳐잇슬뿐이었습니다. 가엽게도 이턴주위를 무
릅쓰고 혼자서!

「너인름이 왕매라고 했지?」

아별의 못는~~만~~에

「안예요. 제일름은 왕매란(王梅蘭)이라우」

하는 소녀의 뚝뚝한대답은 나들 늘라게
하고도남었습니다. 잊지면 중국소녀가 조선말
을 명랑하게도 잘한담! 하고.

「오!라. 왕매란 그래 멧살이야?」

아별은 또 웃습니다.

「열새살이예요」

「그래 너의~~엄~~마 삼바다게시냐?」

소녀는 머리를 죄우로 흔들입니다.

「양친모다 들오가섯서?」

「예에!」

「호호. 불상하게도. 그래. 어떻게되어서 순
너네집을 찾는거야? ...」



「순여하고 천하게 놀았세요. 그래 그애
가 하도 보고싶어서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
예요」
「어디서?」
이런에는 궁금하야 내가 다쳐물었습니다.
그대는 잠깐 생각하는 듯하다가
「봉천(奉天)서요. 봉천야 세요」
하고 말하며 가웃둥 나를 흘려보니다.
「봉천?」음. 봉천은 잘알지.
「네에. 가왔서요?」
「가보진 못했다. 그런데 너는 엇저분 초설말
을 그렇게 잘하니? 어디서 배웠니?」
앗가볼어 그소녀의 똑똑한말씀에 놀래여
마지안는나이라 기여코 물어보고야 말었습니
다.
「내가 저어 신의주에있을때 순녀네집과 이
웃집에 같이살면서 늘상함께 놀았다우. 그
뻐 참자미이섯어요. 그때 배운게야요」
「그럼 신의주거리에서 살었구만. 글세 그릴
겐지! 엇저서 신의주에서 안살고 다시

봉천으로 들어갔대잇서 응~」

「그진말이 뭇해요. 차차 이야기해드리지요.

참, 손녀가 보고싶어 난 정말뜰겐서요.」

「그래, 눈길을 봉천서 예까지 걸어왔서?」

혼자서...」

그말나, 소녀는 대답하지않고

「손녀알이요? 내세, 손녀!」

하고, 어릿광을 부릴다름입니다.

「그래알지. 내말만 잘대답하면 맛나게 해

주지.」

「아이, 맛나고싶어. 그럼, 내말할때 꼭 맛

나게해드어오. 응~」

「그럼, 거짓말 안할때 만해봐.」

「난별식, 이틀을 굶게세요. 그래, 하루 이

틀전이예요. 두어든, 먹을거없나하구 봉천정

거장 나갔다가, 식점은연기도하는 화차(火

車)받지요. 저그라문 먹을것 없나하고, 올라

왔다가, 차장이때문에 벽스에숨어 잇었지요

그대, 문득, 손녀생각이 나서, 신의조카면 맛

나서, 옛날과같이, 놀수잇스려나, 생각했다우

그런데, 참, 그만, 차장에게 들키고 말었세

요. 나의사정, 말하고, 애걸에걸혔드니, 내나

이, 어리고, 신세가엷다고, 용서해주어서, 그

덕력으로, 안느원까지, 무사히왔세요. 바로

무죄다디, 한나전느던, 신의주안애요? 그래,

먹지도못하고, 굶어서, 신의주왔드니, 손녀네

집이, 얼마전, 이티로, 올겨왔단나. 그래, 눈

길을, 걸어오다가, 이형삼을맛났세요.」

나와야, 빚은, 차근차근한, 그매란희, 이야기를

관담아, 들으면서, 눈안이, 축축이, 저저음을

억제할수없습나. 그러면서, 우미들은, 그소

녀에대한, 좁다, 자세한것이, 알고싶었던것입나

다. 그러다, 그고까지, 수고스럽게, 만해준

그소녀에게, 항하야, 덕문기는, 연짜나서, 그만두

엇습나.

「인제, 이야기를, 대했스니, 맛나게, 해드어

요. 네~」

소녀는, 사당스러운미소를, 두블에, 얹으면서

천진스럽게, 어티평을, 부립나. 그러나, 그때

란의사정이, 알고싶었기에, 안뒤를, 재지않고

그저맛나게해주마 했을 따름이지 정말순녀네
집이 이동리를 다시며나 어의로 옮겨간는지
나는 전연 몰음니다. 아범역시 그러합니다.

「응. 래일아침 맛나게해주마. 워선 우리집
에서 음을시켜라. 어린것이 얼마나 큰하겠
나?」

이리하여 그날밤 그소녀는 낯서른 이항(異
郷)에 홀려와서 낮몰은 나의집에 누어 큰
환장에 며려졌습니다. 고요한 꿈나라에서 그
는 정다운동무 순녀를 만나보았스리.....

이른날 나는 그소녀의 조그마한 입술에서
다음과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로밤의단꿈을 꾸고난 왕태란이는 마음이를
을 띄우고 피어난 백합화인양 두볼엔 홍소
가 돌기시작하였습니다. 그의 간담은입술에서
새어나오는 고대로 조품도 장식하지않고 저
어늘는것이 다음의 아기가자기한 이야기기.
참다운순물이 쓰다지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教會 喜消息

延吉教區

延吉教區는 지금으로부터 九년전인 一九二
八년에 元山教區에서 갈려져 새로 설정되었는것
입니다. 그동안 아홉해를 두고 밤낮으로 맹렬히
활동하시며 동서양 각지로 두루 다니신 제일대 교
구장(敎區長) 천학박사 목사 총장 白化東輔의 노
력과 공로는 비길데 없을만큼 크고 컸은것입니다.
교구안의 모든사업이 왕성해가고 친도의 수가늘
어서 十년이 차기전에 교구의 기초는 튼튼한바
위와 같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四月十七日
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교구장 白化東輔를 제一
代 교황대리주교로 인명하는 동시에 이교구를 교
황대리주교관리교구로 승격하였습니다.
이 기쁜소식을 접한 이교구안에서는 주교직성당
(主敎座聖堂)을 신축하며 주교수품 준비와 축하
식 준비등에 대단히 분방합니다.

少女水說

王梅蘭 順世



(一一)

지금으로부터 팔구년전。왕매란의나이사오
때에 그의집은 봉천에서 서쪽으로 십여리나
떨어진곳에있는 정든고향을 버리고 돈버리종다
는 조선의관문인 신의주로 흘러왔었습니다。

처음으로 산설고 물선라주 라향에 떠러진
매란이네집은 신의주 축동(堤防) 밤 음침한골목
에 셋집을어더서 얼마안되는 자론으로 작은마한
잡화방을 시작하였습니다。큰라는없으나 얼마있
남는 수입으로 세식구가 아담스런 살림사리를하
엿든것입니다。

바로 그때 순녀네집은 그마른편에 마조치게놓

金友哲

여잇었습니다。매란이 보다는 두살우인 순녀는
색다른웃음을입고 단나라 소녀였지만 참으로 매란
이의 갖치 솜잡작한철도 하게되었슴며 그러는
사이에 말도 잘듣치못하는 새엇지만두 마음파마
음의 실마리가 얼크러져서 꽤 정다운새가되었습
니다。나어린 두소녀의 참다운순정에는 인휴취
차별도없었습니다。잇다곰 말다름김에 싸유기
도했고 한쪽에서 율음이 터지는때도 없지않았습
니다。그럴때면 순녀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가진 되년아(中國少女)하구 웨노니... 이제
부현 평굴로에하군 같이놀지를말어!」
하시며 책망을 하었습니다。순녀는 이말도 잇

어 버리고 싸움 끝에 또 처해서 뛰어나니며 작란
 질했습니다. 이러한 동안에 다스림과 치운거
 울과 없었는 세월이 흘러서 한수로 사오년。
 때란이 열살. 순너는 열두살의 봄을 맞는데 두
 소너는 - 근방에 있는 사립 여자 강습소에 역개
 를 나란이 견우고 단이게 되었습니다. 너너한집에
 태운아이들이라면 안습살에 보통학교에 단이며
 마음껏 뛰여놀 나이었지만 가난한집에 태어난
 두소너는 무산아동을 잘 키워주는 사립강습소에
매늦은입학을 했는것입니다. 때란이는 중국서당
 에 보내려고 했지만 순너학구말이 조선학교에
 다니겟노라고 아버지께 하도 졸라서 기여코 향친
 의 수락을 얻엇는것입니다. 그때만 하여도 때란
 이는 조선옷만 입으면 누구나 조선계집애로 불
 름 조선훈말에 능난하였습니다.

그리나 그학교(강습소)의 조선계집아이들은
왕매란이를 「되년아」라고 놀려대며 「짱판도!」
 라고 모욕해주었습니다. 그런다고 왕매란의 편
을들어 동무들의 면시와 옥성을 번호하여 주기에
애를 래는 순너까지도 아이들이 난

「저애도 짱판라 간나야!」 엇저 은 저런 되년아
편을 든단」

하고 입을 뻔죽거리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나 그애들이 그리할수록 순너는 때란이를
자기 동생처럼 옹호 하고 번호 해주 습니 다。
이와 같은 우정 은 마름내 그 반상도 들의 반감 을 사
고 야 말 었 습 니 다。
 만일 순너 라는 다정 한 동무 가 없 었 드 라 면 왕
 매란은 조선 아이 들 만 단 이 는 강 습 소 문 을 빠 져 나
가 서 중 국 서 당 (외향)으로든지 음 아 가 를 것 일 니
다。해 가 밖 위 어 서 이 들 해 무 덤 은 여 름 이 불 려
고 가 을 도 놀 려 가 버 리 고 무 성 계 치 운 겨 을
이 는 보 라 를 물 어 쳤 습 니 다。동 무 들 의 기 역 에 도
아 직 새 를 겟 지 만 그 해 는 은 겨 을 부 러 만 주 를 중 심
으로 한 무 덤 고 진 저 러 치 는 싸 움 이 러 져 질 질 말 었 습 니 다。그 러 한 무 성 운 분 위 기 속 에 겨 을 도 물 려
고 일 은 봄 봄 도 오 월 달 이 었 습 니 다。
 아마 그 말 이 가 선 습 너 다。「만 보 산 사 전」이 돌 발
되 자 이 여 향 이 조선 각 지 에 파 급 되 여 평 양 정 성
진 남 로 인 천 등 지 를 위 시 하 야 국 경 도 시 인 신 의



주까지 밀려와서 중국인 X / 사진이 한참 뒤설레
일무렵에 왕매란의 아비지왕사방은 이참극에 환
슬러들어서 그만 뜻밖에 불귀의객이 되고 말았습
니다.

매란이는 그날 밤바의 눈물겨운 추임도 전연몰
고 장승소에서 여러아이들에게 가진옥과 앞은
매를 실천이 더맛고 코피를 흘리며 쪽쪽울고잇섯
습니다. 순녀는 가엾은 매란이를 위하야는 참된
우정에서 축을림을 다하야 원조 하엿습니다.

그러나 참일을 말하는 리론도 그들의 앞에는
살대엿습니다. 여러애의 주먹은 두소녀의 발아
을 쥐여박기에는 너무도 강했던것입니다. 순녀
도 여더맛엿습니다. 그렇나 자기몸 보다도 매란
이를 생각하고 애뜻한마음이 더욱컸는것입니다.
매란이를 안고 그자리에 쓸어져서 채우고 여더
마짓습니다.

선생은 이 눈물겨운 광경을보고 동정의 피눈물
을 뿌리면서 여러생도들을 말리고 순녀와 매란
이를 구해내엿습니다.

그날밤. 늦게 선생댁에서 간호를받고난 두소

너는 자기들의 집으로 말쑥리를 돌리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밤이였습니다。 메란이가 집안에 들
어서자마자 어머니의 노려우는 소리에 그는 맘
 짝 놀랐습니다。 다음순간 그는 아버지의 처한관
 측임을 눈앞에 선하게 보았습니다。 아하! 그때
 칠었고 의지할곳없는 메란이는 아버지의 시체에
 쓸어져 일어나 초능것을짓입니다。

그이른날 밤자로 정관의모호면세 메란과 그
의혼어머니는 봉천행 열차에서 몸을담었습니다
 모든 가장물들은 그집에 남겨둔채로。……

35
그뒤로 봉천역에내린 메란은 엄마의품에 안
겨서얼마동안을 가진고종속에서 보내었습니다
그일나 올행은 다시 무시운허바다는 날들거리
고나어린 그를 집어 삼키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바로한달전에 호열자로알든 그의어머니는 철
없는 만하나를 남기고 있을만에 영원의 눈을
감았은것입니다。 이리하여 세상에서 버림을받
은 가엾은 고아(孤兒)의 신세가 된 왕메란이!
누가 그를위해 구원의손길을 뻗쳐줄것이지요?
먹을것없고 잠곳곳아없는 메란은 거리의집집

문전에서 구걸을하야 몇천의 아질 한 서름
을당하다가 마침내 골은배를알고 봉천정거장에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이우에서 말한바와같
은 정도로 남행차간에 연약한몸을 살게된것입
니다。

이국소녀 왕메란이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귀
담아듯고 잇는 나의마음은 무섭게 흔들려있습
니다。 마음속으로 늘겨울었습니다。 럽석부리
귀녀아범이 만일 이야기를 옆에서 같이들었더라
면 다정환 그영감은 응당 몇줄기의 눈물을 흘렸
을것입니다。

(三)

잇을이지난뒤。 나는 그소녀를 버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메운바람은 우리들싸고 도쌌습니다
「아재씨! 손녀잇는데 꼭대려다줘요。」
「그래 그러마 얼마나 보고싶겠니?」
나는 위도의말을 던져줌으로서 나의끈적을 호
터 버리곤하였습니다。

「아이 좋아라 손녀손녀! 아아!」
메란은 손뼉을쳐며 흥와합니다。 그러나 내가

향하고 있는 곳은 천막뒤편에 파출소이었습니다. 파출소에서는 순녀의 간증을 탐지하여 찾아줄터이니 가서 기다리고 있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말을 매란에게 알려주니까 시운한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그래도 열은 희망을 그리고 있는 양이 아리아리하였습나다. 그런지 나홀채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몹시 바람이 사나웠습니다. 눈보라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때 밥상을 둘러고 앉았는데 밤에서 누가 찾는 소리가 잇기에 행여나 하고 뛰어나가 보니까 아아 반가워라! 거기는 순사와 함께 자갈때로 자란 인제는 처녀의가 백현 순녀가 방긋이 웃으며 나에게 인사를 보내고 있었습나다.

「아아 순녀! 잘 왔다. 옛저문 이 눈보라에!」

「네에 괜찮어요. 그런데 아이 참 왕매란이랄 중족소녀는 어디있나요! 네에?」 「너를 어쩌도 기다렸는지... 참. 얼른 들어와서 안여줘라」 나의 말이 채머러지기도 반부제순녀는 내우도 없이 우리집 안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아이 순녀! 반가워라!」 「너 어떻게 찾아왔니?」

응! 「아아 순녀야 난정말 네가 보고파서 잠이오 지를 안였달다야」

「난 네가 왔단 소식 듣고 아머지가 말리시는 것도 뿌리치고 급하게 오느라고 혼났단다야아.」

네가 어쩌두 보구 푸든지! 참!」

나는 그들의 행복된 이순간은 깨트리지 안키워 하야 밖에나왔습나다. 순사에게 순녀가 온경도를 못하고는 수고를 처하했습나다. 순사는 쓸쓸한 웃음을 던지고 가버렸습나다.

나는 슬며시 두소녀의 걸음으로 갖가히 들어갔 습나다. 「아이 참 옛렇게도 반가운지!」

두소녀는 만껴않고 입을마조면서 눈물까지 흘 렷습나다. 오래동안 머려져잇는 참된우정이 하 로야침에 또다시 피어난것처럼 오래동안 포용한 채로 그들은 말이 없었습나다. 말해서 무엇하리 요. 그기쁨 그심경을... 「다아들 앉어서 이야 기나 하지!」 두소녀는 내가 들이간출 물은는 양 이었습나다. 그날밤의 야기작이한 이야기는 쓰 지않기포합니다. 다만 참된 눈물에 울고저하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겨들 따름입니다. (끝)

Wanbaoshan Incident and Children's Literature

– Juvenile Novel by Kim Woo-cheol Dealing with
the Anti-Chinese Riots in Sinuiju –

Won Jong Chan*

This paper is an excavation report on the juvenile novel <Wang Mae-ran and Sunnyeo> (1937) dealing with the Anti-Chinese Riots in Sinuiju as a result of the Wanbaoshan Incident (1931). Works related to the Wanbaoshan Incident received a great deal of interest from academic circles, but because there are no works related to this incident in the children's literature sector, it was not followed with much discussions. However, the newly discovered juvenile novel by Kim Woo-cheol is on painfully looking back at the tragedies of the Wanbaoshan Incident and Anti-Chinese Riots.

Among the known works, this may be the only work in Korean literature that uses Chinese victims living in Korea during the Wanbaoshan Incident as a key character. In early July of 1931, the Anti-Chinese Riots that spread throughout the entire nation has become an ethically traumatic experience that Koreans don't want to remember. When considering today's situation where issues on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are becoming more and more severe, <Wang Mae-ran and Sunnyeo> can be judged to be a meaningful heritage for not just children's literature but all of Korean literature.

Key words : Children's literature, Kim Woo-cheol, 『Wang Mae-ran and Sunnyeo』,

* Inha University Professor

Wanbaoshan Incident, Anti-Chinese Riots, Manchuria

